



이주스토리

主演을 바꾸면서 話題作된 드라마 <임꺽정>

글/이시권 사우

방송가에서의 '인생역전'은 예상치 않게 일어나곤 했다. A방송사 연기자 모집에서 탈락한 탤런트가 B방송사에서 불세출의 배우로 성공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일이다. 굳이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탤런트선발대회'가 자주 열린 시대에는 종종 회자된 사례들이었다. 벽초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이 SBS 드라마로 제작돼 방송된 건 1996년 11월이었다. 연출자 김한영(그는 '한촌'이라는 아호로 불려주는 걸 좋아했다)이 처음 캐스팅한 주인공 임꺽정 역은 Y로 낙점됐다. Y는 당대 최고의 배우 중 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임꺽정 드라마가 만들어진다 했을 때 Y가 적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던 때였다. 그만큼 임꺽정 역은 Y가 맡아놓을 당상이었다. '한촌'은 일차 캐스팅한 Y를 나에게 보냈다. 보냈다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시의 SBS 제작시스템에는 드라마 PD가 캐스팅을 마친 다음 제작관리부로 보내게 되어 있었다. 출연계약서에 서명하는 일 이전에, 배우와 마주 앉아 출연료를 합의 하는 과정이 제작관리부장의 역할 중 하나였다. 짐작하겠지만, 회사는 연기자의 기존 출연료보다 깎으면 깎았지 더 주지 않으려 했고, 이에 맞서 연기자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출연 고사를 불사하면서까지 출연료 인상을 주장하는 자리였으니 어찌보면 연기자나 필자나 못해먹을 짓을 하는 과정이었다. 당시 최고의 프리랜서 연기자가 회당 150만 원을 받을 때였는데 Y는 처음부터 400만 원을 제시했다. 모르긴 몰라도 Y의 생각은 이랬을 것이다. SBS는 전국방송이 아니어서 인기 유지에 지장이 있으니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겠으며, 연기자들이 SBS로부터 출

연료를 올려 받는 기폭제를 자임하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본다. 회당 150만 원과 400만 원의 차이는 좁혀지기 힘든 숫자였다. 그러나 회사는 속고 끝에 회당 300만 원까지 물려섰다. 그만큼 기대되는 드라마였고 연출자 입맛에 맞는 연기자를 계약해 주는데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지금 와 돌이켜봐도 작품 잘 만드는 '한촌'은 경영까지 잘 아는 연출자였다. Y가 고집을 꺾지 않고 고액을 고집하자 다른 연기자를 물색하겠다고 나에게 귀뜸했다. 300만은 무슨 삼백만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정말로 주인공을 교체했다. 그것도 완전 신인에게 배역을 맡겼다. '정홍채'라는 배우는 방송가에서는 낯선 연기자였다. 연극 '끝없는 아리아'로 데뷔한 8년차 연극배우로 Y보다는 8살 아래의 청년이었다. 이러한 무명 배우 정홍채를 '한촌'은 회당 50만 원으로 새롭게 캐스팅했다. 180센티, 82킬로그램의 야성미 넘치는 외모의 정홍채는 그렇게 임꺽정 역을 멋지게 소화해냈다. 퓨전 사극의 시조로도 평가받은 드라마 <임꺽정>은 총 44부작으로 1997년 4월 6일, 평균 30%의 시청률로 종영했다. 지금도 <임꺽정>을 기억하는 수많은 시청자들 중 Y가 J로 뒤바뀐 배경은 거의 모르는 사실로 남아있다.



사 | 우 | 회 | 보



김기배(영상) 지난 5월 티미디어웍스 전무에서 대표이사로 승진 선임 됐다. 티미디어웍스는 각종 프로그램 제작에서부터 송출까지 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방송 전문기술회사다.



이중수(드라마) 지난 4월에 촬영에 들어간 단막 드라마 '장의사들' 후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으로 작업중인 이 드라마는 UHD로 제작되고 있다.



김정택(악단)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아프리카 돌기 사랑의 자선 음악회 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사우들도 초청되어 관람 했다.



이찬휘(보도) 지난 4월 의료제약 전문지 시사메디an 주간 및 인터넷 방송국장에 임명됐다. 이사우는 현재 대한의료관광 진흥 협회 홍보이사도 맡고 있다.



박영호(제작) 지난 5월부터 여름밤 더위를 씻어주는 강변색소폰 연주회를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밤 한강 성산대교 특설무대에서 갖는 연주회는 9월까지 계속된다.



박동주(라디오) 지난 4월 SBS 시청자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박사우는 ch 미디어에서 제작하는 시청자 세이브 열린TV 자문 위원도 겸하고 있다.

<협찬금 내신 분>

우리은행 계좌번호
협 찬 회 비
1005-001-954097

구자걸
(30만원)변순복
(30만원)이근용
(30만원)조희수
(20만원)

지난 달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진 가평을 어느 폐교에서 작은 음악 공연이 시작되었다. 오랜침묵에서 깨어난 운동장에 클래식 선율이 감미롭게 번져나갔다. 외롭게 폐교를 지켜 온 질푸른 나뭇잎들이 선율에 실려 춤을 추었다. SBS 사우회가 이지역 문화 예술의 공간이 될 상설 전시장의 문을 여는 축하 자리였다. 사우회가 공들여 추진 해왔던 재능기부 사회공헌 프로그램 꽃이 핀 것이다. 사우회, 가평군, 공연기획사, 삼각편대가 이뤄낸 결실이다. 디지털 시대, 방송

예술을 접목시킨 전시장, 사우들의 재능기부가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예까지 오는데 아스팔트 길만은 아니었다. 사우회 그림대로 이루어질지 반신반의하며 자갈 길을 지나왔다. 이를 처음 제의한 J사우 등 사우회 임원진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이 전시장이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 지역의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못지 않게 말이다. 호명산을 등지고 면발치 북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곳, 가평을 보장리 보장포 초등학교에 자리한 아트뮤지엄, 이 지역 옛 이름이 북골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니 왠지 느낌이 좋다.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2016년 7월 1일 제39호

발행처 사단법인 SBS사우회 발행인 김수웅 편집인 박동주 주소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605호(태양빌딩)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사회 공헌 프로그램 꽃이 피다

가평군 아트뮤지엄 재능기부

SBS사우회가 사우 재능기부 사회공헌프로그램의 하나로 가평군과 함께 추진해온 가평 인터랙티브 아트 뮤지엄이 지난 6월 23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가평을 북장포초등학교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SBS 사우회 임원진과 김성기 가평군수, 인터랙티브뮤지엄 박대양 대표 등 문화예술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으로 시작 됐다. 김수웅 사우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 전시장이 문화콘텐츠의 중심이 될 수 있게 SBS 사우회가 열심히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에 김성기 가평군수는 이 전시장을 통해 지역 문화 예술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SBS 사우회 측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사우회가 마련한 개관식 축하 공연은 참석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우회는 그 동안 가평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트 뮤지엄 주관사인 메르몽아트센터와 개관을 추진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인터랙티브 아트는 관람객이 직접 작품과 소통 할 수 있는 쌍방향 예술감상으로 디지털시대의 각광받는 신개념 전시분야다. 사우회의 이번 인터랙티브 아트뮤지엄 방송재능기부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의 자유학기제에 이어 두 번째 결실을 맺게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중간광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의 빗장을 풀지 않아 지상파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중간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10년째가 된다. 광고주들이 중간광고가 불가능해 지자 지상파에 광고를 줄이고 있어 지상파 방송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너 섬 나 섬

— 사우회 사회공헌 프로그램 결실, 이제 사우들의 아낌없는 재능기부를 할 차례기 부왕 빌게이츠 손들고 기브 업 하게

— 동호회 이벤트 행사 풍성, 사우회 창립 10주년 맞이 특별 지원으로 동호회 참석률 사상 유례없는 만원사례, 역시 생선하나 지원금은 두툼해야 제맛이야

— 사우회 불철야유회 성황, 싱그러운 숲속길 힐링으로 샘솟은 힘 어디다 써먹을까? 꽃도 보고 남도 보았으니 알아서 하시길...

— 사우들 백두산 등정길, 백두정상에서 야호! 외치지 마시길, 백두산 호랑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나타나면 백살 精氣 받으나마나 도루아미타불.



숲속길 걸으며...

힐링 야유회 만끽

바람에 실려온 꽃 향기를 마시며 싱그러운 숲길을 거닐었더니 힘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옛 동료들 오랜만에 얼굴보며 얘기를 나누는 것 이게 힐링 아닙니까?' 지난 5월 19일 경기도 곤지암 화담숲, 사우회 불철야유회 참석 한 사우들의 힐링의 외침이었다. 이 날 야유회에 참석한 60여명의 사우들은 숲속의 자연과 교감하면서 지친 마음을 해독했다. 사우회 김수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사우들에게 감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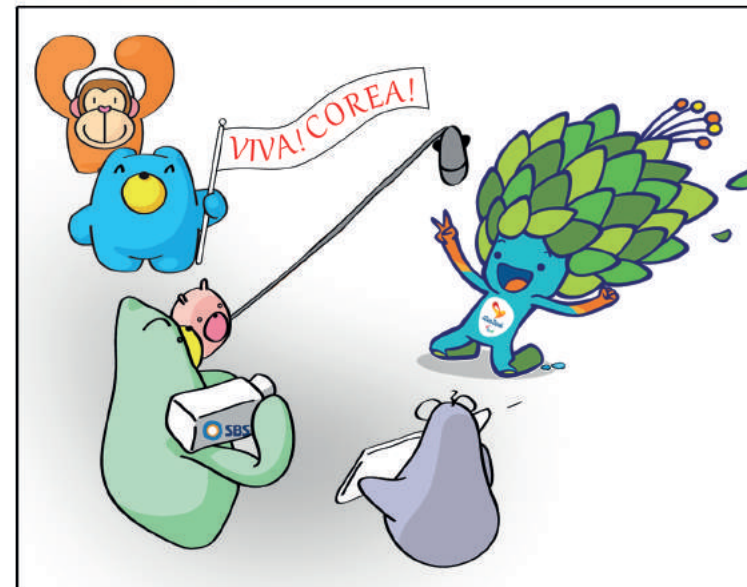
뜻을 표하며 숲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사우 모두 백세인생 누리기를 기원했다. 특히 이날 야유회는 9명의 부부동반 사우들이 참석해 인고부부의 애정(?)을 과시했다. 숲속길 힐링을 마친 사우들은 인근 바베큐장에서 오찬을 즐긴후 가을야유회서 다시 만났것을 기약했다. 한편 사우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 가을야유회를 사우회 창립 10주년의 뜻깊은 의미를 담아 색다르게 준비할 예정이다.

그들이 백두산으로 갔다.

SBS 사우회 사우들이 지난달 29일 백두산 등정에 나섰다. SBS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마련 된 이번 백두산 등정은 32명의 사우들이 참가했다. 32명의 사우들은 4박5일 일정동안 백두산 서파코스

등정을 비롯해 집안의 광개토대왕비 등 고구려 역사 유적지 탐방과 단둥과 대련 지역의 관광지를 돌아보고 이달 3일 돌아온다. 한편 이번 백두산 등정길에는 5명의 사우가 부부동반으로 참가했다.

SBS社友漫評



以熱治熱 • 올림픽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SBS Medianet
서울 박동주 경영관로 82 SBS 프라자4층

